

대졸 취업률 학과차이 여전

의약·공학 80%선...인문계 50%그쳐

28일 취업정보전문잡지인 <리크루트>가 지난 2월 대학졸업자 중 전국의 2백30개 학과 10만6천2백39명을 대상으로 계열·학과별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커다란 계열별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크루트>에 따르면 의약학 계열이 88.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공학계열(77.1%), 상경계열(68.1%), 농·수·축산계열(60.9%)도 비교적 취업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여학생인 가정계열은 40.1%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인문사회계열(47.7%)과 어문학계열(50.5%)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50%선 안팎을 맴도는 데 그쳤다.

순수취업자들을 직장별로 나눠보면 전체 11개 계열 중 의약·학·사범·예체능계열을 제외한 8개 계열은 일반기업에 취업한 것이 단연 많아 모두 50%를 웃돌았다.

공무원으로는 법정계열(10.7%)과 농·수·축산계열(7.1%) 출신자들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언론·출판분야에는 인문사회(6.4%), 어문학(5.8%) 계열 출신자들이 많았다.

학과별 취업률도 역시 공학·의

약학계열이 단연 높았다.

항공(1백%), 의학(97.3%), 전자통계(96.8%), 원자력공학(89.5%) 등이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사학(30.5%), 심리(32.6%), 도서관학(33.9%) 등이 열세를 보였다. 한편 <리크루트>가 조사한 전문대학은 대학의 경우와 달리 인문·사회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취업현황

(단위:명, %)

구분	졸업자			전체 취업률 (군입대등 포함)		
	남	여	계	남	여	계
계열						
어문학	5,375	8,343	13,718	65.2	41.0	50.5
인문사회	2,781	3,031	5,812	64.7	32.2	47.7
상경	15,247	3,121	18,368	72.4	47.0	68.1
법정	6,430	1,385	7,815	60.1	33.8	55.4
공학	24,672	2,378	27,050	79.0	56.3	77.1
이학	5,182	3,184	8,366	65.8	41.5	56.6
예체능	2,795	4,399	7,194	68.6	51.1	57.9
의약학	2,090	1,119	3,209	88.8	87.7	88.4
농수축산	2,695	844	3,539	69.4	33.8	60.9
사범	2,963	5,091	8,054	61.5	45.5	51.4
가정	138	2,976	3,114	68.8	38.7	40.1